삼매 속에서는 모두가 공화다

〈空華〉



지안 스님의 〈능엄경〉 강해

⑩ 삼매의 언어

〈원문〉 부처님이 문수보살에게 고하셨다.

"시방의 여래와 그리고 큰 보살들이 머무는 삼마지 가운데서는 견(見)과 견연(見緣)과 아울러 생각하는 상(相)이 허공의 꽃(空華)과 같아 본래 있는 것이 아니니라. 이 견(見)과 연(緣)이 원래 보리의 미묘하고 청정하고 밝은 본체이니 어찌 이 가운데서 옳은 것(是) 그른 것(非)이 있겠느냐? 문수여, 내가 지금 너에게 묻노니 네가 문수인데 다시 문수라 할 문수가 있겠느냐 없겠느냐?"

"예 세존이시여, 제가 참 문수이면 그만이지 문수라 할 문수가 따로 없나이다. 왜냐하면 문수라 할 문수가 있다면 두 문수가 되겠나이다. 그러나 오늘 문수가 없는 것 아니오니, 이 가운데 옳은 문수, 틀린 문수라 할 시(是)와 비(非)가 없나이다."

부처님이 말씀하셨다.

"이 미묘하고 밝은 견(見)과 허공과 진(塵)도 그러하여 미묘하고 밝은 위없는 보리의 깨끗하고 원만한 참 마음이니라."

〈강해〉 부처님의 말씀을 삼매의 언어라고 말한다. 지혜의 말씀, 자비의 말씀이라고 하기도 하지만 이는 듣는 중생의 입장에서 하는 말이고 설법하는 부처님은 언제나 삼매의 경지에서 법을 설하므로 삼매의 언어라 하는 것이다. 문수보살에게 일러주는 부처님 말씀에 '불보살이 머무는 삼마지 가운데서는 견(見)과 견연(見緣)과 생각하는 상이 허공의 꽃(空華)과 같다' 고 하였다. 삼마지는 삼매이고 견(見)은 정견(精見)이며 견연(見緣)은 색진(色塵) 등 육진경계(六塵境界)이다. 생각하는 상(相)이란 육식(六識)과 육근(六根)을 말한다. 쉽게 말하면 분별 시비가 일어나는 주관과 객관의 두 영역인 십팔계(十八界)의 경계와 식정원명(識精元明)까지도 눈병이 생겼을 때 나타나는 공화(空華)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진(眞) 과 망(妄)이 모두 헛것이라는 것이다. 깨달은 경지에서는 부처도 없고 중생도 없다는 말처럼 선정 가운데서는 능소(能所)의 상대가 없다는 말이다. 보리의 청정한 본체에는 시(是)도 없고 비(非)도 없다고 한 것은 차별이 없는 절대의 경계를 드러내는 말이다. 허공의 꽃은 본래 없는 것이지만 눈의 착각에 의해서 보이는 것처럼 주객이 나눠진 일체의 분별은 참 마음을 모르는 망심(妄心)에서 일어나는 것이라는 뜻이다. 그러나 진(眞)을 내세우기 위해서는 망(妄)을 부정하지만 진(眞)이 있으니 망(妄)이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깨달음(悟)이 있기 때문에 미혹(迷)이 있는 것이다. '색불이공 공불이색(色不異空 空不異色)' 에서 색을 부정하여 공으로 보다가 다시 공에서 색을 찾아내는 논리와 같다. 공관(空觀)과 가관(假觀)을 상통(相通)시켜야 중관(中觀)이 되는 것이다. 중관이 곧 중도(中道)다.

〈원각경〉에서는 '환으로써 환을 닦는다(以幻修幻)' 는 말이 나온다. 이 말의 뜻은 부처의 경지에서는 부처라는 것도 허깨비(幻) 같은 것이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견(見)과 견연(見緣)이 허망한 허공 꽃이지만 동시에 진실한 보리 그 자체라 하여 망(妄)을 진(眞)으로 전환시켜 놓는 말씀을 하고 있다. 이것이 이 대목의 결론이다. 문수를 불러 놓고 네가 문수인데 다시 네게 시(是)문수 비(非)문수라 할 게 있느냐는 뜻으로 물었다. 문수 하나를 놓고 이건 진짜 문수 저건 가짜 문수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느냐는 말이다. 이렇게 물은 것은 본래 진(眞)과 망(妄)이 따로 없다는 뜻에서이다. 진망이 나눠지는 것은 미혹에 의해서라는 것이다.

불교는 이 세상을 부처의 세계로 보자는 주장을 내세운다. 〈화엄경〉 대의에서도 '두두(頭頭)가 비로(毘盧)요 물물(物物)이 화장(華藏)이다' 는 말이 있고 유심정토를 내세우는 말에도 '이 세상이 극락이다' 는 말도 있다. 비록 중생의 세계가 미혹의 세계이고 망(妄)의 세계이지만 이것은 중생의 미혹에서 나온 결과라는 것이다. 알고 보면, 깨닫고 보면 부처의 세계요, 진여의 세계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깨닫기를 강조하는 것이다. 무학대사와 이성계 사이에 있었다는 말인 '부처의 눈에는 부처로 보이고 돼지의 눈에는 돼지로 보인다' 는 농담 같은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지 않은가.

〈반야불교연구원장〉

장부 순화는 중심 세우는 것부터…



구선스님의 〈묘법연화경〉 강의

⑩ 육장의 순화

선정의 단계마다 몸의 제도를 이루는 범위와 방법이 서로 달라진다. 초선정에서는 육장의 순화를 행한다. 2선정에서는 육장의 순화와 척추뼈 순화를 행한다. 선천 원기를 각성시킨다. 3선정에서는 반신 소주천과 갈비뼈 순화를 행한다. 4선정부터는 밝은성품을 운용하면서 몸을 제도한다. 육부 순화와 꼬리뼈 순화를 행하고 반신 소주천을 완성시킨다. 밝은성품과 선천기, 후천기를 하나로 합쳐서 밝은성품의 자연적 성향을 제도한다. 5선정에서는 말초신경을 순화한다. 생식호르몬을 제도하고 환정보뇌(還精補腦)를 이룬다. 공무변처정에서 행해지는 자기 제도이다. 6선정에서는 머리뼈 순화와 중추신경을 제도한다. 식무변처정에서 행해지는 자기 제도이다. 선정에서는 세포 제도를 행한다. 이 과정에서는 사륜삼매(四輪三昧)를 활용한다. 사륜이란 풍륜, 지륜, 수륜, 화륜을 말한다, 세포 생명을 이루고 있는 물질의 성분이 바로 사륜이다. 지, 수, 화, 풍 사대와 교류하면서 세포 제도를 행한다.

육장의 순화

장부 순화는 중심을 세우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명치 위 1㎝, 속으로 5㎝ 정도 들어간 자리에 의지를 두고 그 자리에서 편안함을 느낀다. 이 자리가 중심이다. 중심은 오장의 상태가 반영되는 자리이다. 또한, 머릿속 시상과 공명하는 자리이다. 중심은 마음 거울로 쓰인다. 중심을 통해 장부를 순화한다. 장부는 6장 6부로 이루어져 있다. 6장은 간, 심장, 비장, 폐, 신장, 삼초이다. 생명 에너지를 저장하는 창고이면서 감정이 내재되어 있다. 6부는 담, 소장, 위, 대장, 방광, 심포이다. 생명 에너지를 생성하는 기관이다. 식의 상태에 따라서 6장의 역할과 기능이 달라진다. 6식의 상태에서는 감정이 생겨나고 생명 에너지를 저장하는 역할을 한다. 7식의 상태에서는 6장에 내재되어 있던 각각의 주체 의식들이 깨어난다. 6장의 하나인 삼초는 뇌의 신경 영역이다. 시상핵과 대뇌변연계, 대뇌연합령을 연결하는 파페츠회로가 삼초의 영역이다. 7식의 상태에서 시상으로 들어가면 6개의 주체 의식이 합쳐지는 장소가 있다. 이 자리는 몸의 5장과 서로 연결되어 있다. 5장을 이루고 있는 다섯 개의 주체 의식과 머리를 이루고 있는 한 개의 주체 의식이 이 자리에서 합쳐지면 생각이 일어난다. 오장의 의식을 전5식이라 하고 생각을 후6식이라 한다. 전5식이 합쳐져서 후6식이 생긴다. 시상에서 생겨난 생각이 파페츠회로를 타고 돌면서 사유가 행해진다. 6식의 상태에서는 내가 한 사람이다. 7식으로 들어가면 내가 여섯 사람이다. 6식의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장부 순화가 있고 7식의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장부 순화가 있다. 6식의 장부 순화는 초선정에서 행해지고 7식의 장부 순화는 2선정에서 행해진다. 6식의 상태에서 행해지는 장부 순화는 표면적 순화이다. 장부순화는 장부간의 균형을 맞춰주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7식에서는 6장에 내재된 각각의 주체의식을 제도의 대상으로 삼는다. 6장의 주체 의식을 제도하려면 먼저 각각의 주체 의식을 일깨워야 한다. 6식의 상태에서 장부를 순화하는 방법으로 옴자 발성법이 활용된다. 옴자 발성을 통해 장부를 순화하고 중심을 세워준다. 장부는 감정과 의식 상태에 따라 본래의 고유성이 훼손되어 있다. 장부의 균형을 깨뜨리는 요인이 음기(陰氣)이다. 음기를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이 부정적 의식이다. 음기가 정도 이상 누적되면 신경 간의 교류가 과도하게 이루어진다. 의식과 의식이 무작위로 교류되는 것이 번뇌이다.

번뇌가 많은 사람은 수련에 집중할 수 없다. 율적인 수련을 위해서는 몸 안에 누적된 음기를 적절하게 조절해 주어야 한다.

〈영양 연화사 주지〉



지흐스님의 〈능가경〉 강설

⑩ 대승보살의 수행 방법

수행, 결과 아닌 원인소멸이 목적

수행 방법을 알아보기 전에 먼저 대승보살의 수행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자. 대승경전에서 대승보살이라 말하는 대상은, 가르침을 듣기 위해 한자리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고, 그 하나의 가르침으로 무리지어 수행하는 사람을 지칭하여 대승보살의 수행이라 말한다. 그러면 왜 대혜대사는 대승보살의 수행 방법을 부처님에게 물어보는가.

대혜대사는 미래의 수행자들은 하나의 가르침으로 모이지 않고 각자의 견해와 관념이 다양한 대중이 모여서 수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미리 알고, 부처님께 여쭈어 그것을 남겨 두고 싶은 마음이 일어난 것이다. 왜냐하면 부처님께서 계실 때와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뒤의 수행 방법은 엄청난 차이가 난다는 것을 너무 잘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부처님 당시의 수행은 대부분 홀로 떨어져 가르침을 새기다가, 그 새김이 올바른지를 부처님께 다시 묻는 방법으로 수행의 기본을 삼았다. 그러므로 수행자 대부분은 나무 밑에서 홀로 수행하게 되고, 공동으로 해야 하는 일은 극히 드물어 서로를 제한해야 하는 일이 많지 않았다. 그리고 홀로 수행하다 보니 일어나는 번민은 대부분 대상이 아니라 자신의 견해와 관념에서 일어나고 사라진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있었다. 기본으로 알고 있는 것을 불필요하게 따로 말할 필요가 없었다. 하지만 하나의 가르침이 훼손되고, 조건이 다른 대중들이 모이고, 그런 대중이 함께해야 하는 일이 생겨나고, 견해와 관념이 다른 대중들의 부딪힘이 생겨나면서, 수행자들 대부분은 자신의 마음 상태를 살펴보기 전에 외부 경계에 나타난 상황에 정신을 집중함으로써, 하나의 가르침으로 새김 되어야 하는 가치를 잃어버리고 혼란을 겪게 된다.

"만법이 모두 자기 마음이 드러난 것임을 잘 아는 것이고, 바깥 사물과 외부 경계에 모두 자성이 없음을 잘 관찰하고, 생겨나고 머물며 소멸하는 견지를 잘 벗어나는 것이고, 자각성지를 얻는 즐거움이네."

이런 만연한 인식으로 인해 마음의 경계가 계속 일어나고 있다면, 그때는 움직임을 멈추고 고요히 하여, 마음이 무엇으로 춤을 추고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 물질이 움직인다는 것은 분명 외부의 자극이 생겨야 움직이는 것은 맞지만, 물질이 움직인다고 마음이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 마음이 움직인다는 것은 마음 안에 두 가지 이상의 견해가 나타난 것인데, 마음 안에 어떻게 두 가지 견해가 나타날 수 있겠는가? 만약 마음에 두 견해가 나타났다고 가정하면, 하나는 허상이고, 하나는 실상이어야 하지만 허상은 모양이 될 수 없으니 나타날 수 없고, 실상은 보는 그대로이니 이미지화하여 나타낼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마음에 상이 나타나는 것은 모두 허상인 것이다. 마음에 나타난 상이 허상이라면 일어난 상황에서 옳고 그름으로 분별할 것이 아니라 원인과 결과로 나타난 동일한 사안으로 보아야 한다.

삶과 수행은 이 두 가지를 보는 방식이 완전히 다르다. 삶은 인과성의 의미에서 보면 결과를 중요시한다. 왜냐하면 삶은 반복을 원칙으로 보기 때문에 주고받음이 명확해야 한다. 그러나 수행은 결과가 아니라 원인을 소멸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그래서 그 원인을 바르게 알고 원인을 제거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옳고 그름이라는 결과를 만들어 놓으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래서 모든 일에 모름을 두라고 말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그리고 수행은 일어난 일에 막연한 인식으로 분별하는 마음을 경계하여야 하고, 그때 분별하는 마음은 견해와 관념에 묶인 상태로 대상을 보기 때문에, 지금 보이는 그 대상은 자신의 마음속에 비친 허상을 꺼내어 보고 있는 것이지, 실상을 그대로 보는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생주멸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은 시공간을 통해 마음이 만들어 놓은 허상임을 알고, 그 현상에서 자성을 찾아 헤매는 일은 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찾지 않는 것이 가장 잘 벗어난 지혜이고, 다시는 모양과 소리에 현혹되지 않고, 얻지 않는 즐거움을 누리게 된다. 이때 바르게 본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어렴풋이 알게 되면서 수행의 즐거움을 향유하게 된다.

〈(사)여시아문 선원장〉

민속죽염 30년 전통
조상의얼과혼이담긴 우리민족의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좋은 소금" 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①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②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③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④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 9번 구운 민속죽염 ◈

가루자죽염	125g	45,000원
가루자죽염	230g	82,000원
알갱이자죽염	125g	50,000원
알갱이자죽염	230g	90,000원
휴대용 알갱이자죽염	20g	9,000원

◈ 2번 구운 민속죽염 ◈

◆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보급형 민속죽염	500g	20,000원
	250g	10,000원

※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주문 및 상담 010-2823-0483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길381-4 www.msjy.co.kr

염불시설은 아무나 하나?!

염불시설로 반생을 보내며 사찰소리 연구 전문시설인의 견본과 귀 사찰의 법당시설과 양손의 마이크로 스님 자신이 염불을 해 보신 후 장난감 같이 소리차이를 확인 후 염불시설상담!!

20년간 설악 신흥사부터 남해의 토굴까지 1천여 사찰 시설했지만 고장없음, 만일 고장이 난다면 입소문 때문에 장사를 고만 두어야 함, 시설비 190만원부터 ~ 수 천만원까지

전국을 다니며 시설함으로 귀 사찰을 부근을 지날때 견본으로 일단 소리만 비교
(소리비교비용은 커피한잔!)

USB겸용 앰프1, 스피커 4개, 헤드셋 핀 무선마이크 4개, 본품들은 시중에 없음

원톱 시스템 다목적 방생용
한번에 최고의 성능을 구입하시면 절약
속에 후회가 없다는 뜻!
충전식 / 출력 300w
/ 헤드셋무선 2 /
유선 2 / 마이크 4개 동시사용,
USB 동시녹음(색소폰
무선전용마이크)
실내 40평 /
야외사용 겸용
(스탠드 포함)
정가(스탠드 포함) 89만원


시중에 없음
염불시 마이크와 2m
멀리서도 소리 월등
스탠드 분리형


시중에 없음
넥타이핀마이크 2개, 헤드셋마이크 2개,
마이크 숫자 4개, 가격 65만원
▣ 한국사찰 각종 "재" 전문

방송장비
KBS 및 각 방송사 방송기재 납품업체
마이크 공장직영, Multi-Cube
각종 방송시설
MASS MICROPHONES
Concert
경남 김해시 진례면 진례로 108
TEL : (055) 343-1191
H·P : 010-9471-2026
010-7740-2026
명품Sound 명품사운드 대표 박공희